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44호 【루계 제2618호】

주체109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음력 9월 1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은 강위력한 나라, 승리의 상징》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된 소식이 전세계적

판도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김정은각하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식의 열병식, 정말 멋있다. 최고이다.》,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는 강군만이 이런 열병식을 할수 있다.》, 《조선은 강위력한 나라, 승리의 상징》…

누구도 감히 조선을 넘보지 못한다는것을 시위한 열병식

온 세계가 대류행전염병의 확산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을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성대한 경축열병식이 진행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져 행성을 들끓게 하였다.

중국중앙TV방송, 로씨야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몽골의 몬짜메통신, 인디아-아시아통신, 수리아중앙TV방송, 알제리신문 《알 히와르》, 민주꽁고신문 《라브니르》, 세네갈 인터네트신문 《앵빡뜨》, 브라질신문 《빠뜨리아 라띠나》, 베네수엘라의 인터네트홈페지 《씨따라마가지네》를 비롯한 각국의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특대소식으로 일제히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조선이 성대한 열병식 거행》, 《김정은최고령도자 열병식에서 연설》, 《북조선 김정은위원장 열병식 사열, 무력강화의지 표명, 코로나와 싸우는 세계인민들 고무》, 《조선의 특대형열병식》 등의 제목을 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전문 또는 요지보도하였으며 열병식 전과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데일리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일을 맞으며 북조선이 성대한 열병식을 거행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연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충분히 통제관리할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조선을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것이라고 밝히시였다.

열병식에서는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이 공개되였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은 그 누구도 조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엄숙한 경고라고 하면서 로씨야 련방공산당 싸할린주지부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열병식장을 누벼나간 최첨단무기들은 그이의 선언이 얼마나 무게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과 먄마TV방송들, 사우디 아라비아 신문 《알 샤르끄 알 아우싸르》는 열병식에서는 조선의 존엄과 안녕을 담보하는 대륙간탄도로케트종대와 핵전략무력종대들이 진군해나갔다, 행사가 전례를 깨고 0시부터 진행된것이 특이하게 주목된다고 하면서 분석가들은 열병식마감에 등장한 미싸일을 사상 최대규모의 미싸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북조선은 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세계최대의 탄도미싸일들중의 하나로 간주되는것을 공개하였다.

행사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다른 하나는 북조선이 행사를 특색있게 진행하였다는것이다.

전투기들이 날개에 불장식을 하고 조명탄들을 발사하여 행사장상공에 《75》라는 수자를 새겼다.

촬영기를 설치한 무인기들은 열병대오상공을 저공으로 날아다니면서 보다 세밀하게 찍은 화면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전세계가 《COVID-19》에 대처하고있는 가운데 행사장에서는 마스크를 낀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신문들인 《꼼빠스》, 《쟈까르따 포스트》, 인터네트신문 《르몰》, 인터네트통신 버리따 싸뚜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출판보도물들은 조선의 열병식은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시위하였다, 수직발사차량에 실은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은 북조선이 공개한 미싸일들중 제일 큰것이다, 이외에도 종전보다 더 커진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도 출현하였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민족부흥망은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이 당창건 75돐이 되는 심야에 진행한 열병식은 사람들에게 세계일류급의 군대를 보여주었다.

첫째는 80%가 처음 공개된 선진무기라는것이고 둘째는 제국주의의 간담을 서늘케 할 슈퍼급탄도미싸일이라는 이 《절대병기》이다.

특히 조선인민군이 전부 착용한 실전야전복들로 더욱 돋보이는 강철같은 대오는 사람들에게 불패의 강대한 력량임을 립증하였다.

조선인민이 더더욱 강해졌다.

이제 더는 그 어떤 제국주의국가도 조선에 대해 함부로 무력사용을 떠들수 없게 되였다.

조선의 평양에서 있은 대규모 열병식에서는 신형대륙간탄도로케트가 나타나 전세계를 놀래웠다고 하면서 네팔의 인터네트홈페지 《라떠 코보르》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날에 날마다 새로운 진보를 이룩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은 조선의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이 나라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였지만 결코 조선의 전진을 막을수 없었다.

열병식이 얼마나 황홀하고 멋이 있는지 시간이 흐르는것도 몰랐다고 하면서 기네 기꼬프레스 총회사 행정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 신음하던 조선이 이제는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넘겨다 볼수 없는 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힘이 약하면 대국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금 누구나 바라면서도 오를수 없는 군사강국의 지위에 바로 조선이 우뚝 올라섰다.

조선의 현실에서 크지 않은 나라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면 위대한 나라로 될수 있고 조선처럼 수십년간의 경제봉쇄와 군사적위협속에서도 자주의 길, 군사강국의 길로 거침없이 나갈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대대로 위대한 수령들을 모신 조선인민이 정말로 부럽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이런 글을 실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일성광장을 지나간 최첨단무기들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것이였다.

과연 이 신비스러운 무기체계의 사명은 무엇인가?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최대열점지역으로 알려져있다.

그것은 적대세력들이 이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군사적위협과 함께 경제제재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기때문이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은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려는 세력을 사전에 제압할수 있는 믿음직한 국방력을 강화해왔다.

이번에 출현한 최첨단무기체계들은 누구도 감히 조선을 넘보지 못한다는것을 시위하였다.

새로운 강국의 출현을 알린 열병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성대히 거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국제사회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튜브, 중국의 시나웨이보와 빌리빌리 등 세계사회교제망들에도 외국인들의 흥분된 소감이 계속 실리고있다.

《완벽하게 잘 짜이고 독특한 열병식이다. 아주 현대적이고 인상적이며 정말 멋있고 훌륭한 열병식이다. 대단하다. 이 열병식은 나에게 강한 정의감을 안겨주었다.》

《11축짜리 대륙간탄도미싸일! 이건 아직까지 세계에 없는 전략무기이다! 미국에서도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괴물무기라는 소리가 터져나온다.》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 중거리로케트, 대륙간탄도로케트, 수중탄도로케트를 다 보유하였다는 이 사실자체가 놀랍다.》

《대륙간탄도로케트는 대국의 국보이다. 결국 조선은 대국이다.》

《11축짜리 대륙간탄도로케트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건 정말 세계군사계를 놀래우는 괴물이다.》

《서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만들어낸 조선을 축하한다.》

《조선의 무장력은 정말 강하다.》

《밤에 진행되는 열병식을 보기는 처음이다. 세계열병식력사상 처음으로 될것이다. 멋있다. 조선만세! 영국에서 경의를 보낸다.》

《조선의 군악단의 음악이 정말 멋있다.》

열병식은 조선반도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으로 되게 하시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억센 의지를 세계앞에 명명백백히 보여준 계기였다.

《멋있는 열병식이다. 당창건 75돐을 맞는 조선인민을 축하한다. 조선로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자주 만세!》

《짧은 시간에 조선의 군사력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조선이 제재속에서도 여전히 군사를 상당히 발전시키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에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조선의 무장장비가 이렇게 현대적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타원통탄창은 조선만이 가지고있는 특색있는 탄창이다. 이번 열병식에 나오는 무장장비들이 모두 세계일류급이다. 형제적이며 동지적인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길 바란다.》

《보병들의 무장장비가 보기만 해도 대단하다.》

《비행기들의 야간열병식은 세계력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야간밀집비행은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다. 조선이 력사를 창조하였다. 이 비행사들의 기술수준이 간단치 않다.》

《정말 놀라운 발전을 보았다. 새형의 땅크와 군복, 장비가 멋있다. 수자식위장복과 철갑모가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군대의 풍모가 정말 멋있다.》

《세계는 변화되고있고 조선과 같이 새로운 강국이 출현하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조선의 열병식은 사회주의우월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강대한 무장력만이 사회주의인민정권을 지킬수 있는 법이다!》

《조선, 멋있다! 조선 정말 잘한다!》

《조선, 정말 장하다! 70년이 넘도록 제국주의와 맞서싸운 조선로동당 만세!》

본사기자

공화국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

공화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80일전투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한 앙양된 열의와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를 자랑스럽게 결속하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의의있게 맞이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과감한 련속공격전으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기적을 더 큰 기적으로 이어나가며 혁명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투쟁방식이며 당대회를 맞이할 때마다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벌려 위대한 전변의 력사를 안아오고 눈부신 기적을 창조해온것은 공화국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으로 되고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인민은 해방후 처음으로 되는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당 제2차대회를, 전쟁의 재더미를 가시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시위한 긍지드높이 당 제3차대회를, 천리마의 나래퍼고 대고조의 승리로 당 제4차대회를, 사회주의공업화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당 제5차대회를, 100일전투의 승전포성과 함께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낸 자랑찬 선물을 안고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였다.

지난 2016년에도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70일전투를 진행하였었다.

당시 공화국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공업생산을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 장성시켰으며 수많은 기계제품들을 개발하는것과 같은 혁신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 자랑찬 결실은 온 나라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도록 하시고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려 20여개의 단위를 찾고찾으시며 70일전투에서 보다 큰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올해는 공화국에 있어서 류례없이 어렵고 간고한 해라고 해야 할것이다.

정초부터 뜻하지 않은 악성전염병의 류입을 막기 위한 방역대전이 벌어졌으며 련이은 자연재해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하여 참으로 간고하고 힘겨웠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은 이 모든것을 이겨내고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이 기세로 공화국의 인민들은 80일전투에 진입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인민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한 그 열정, 그 기세로 다시한번 모두가 분발하여 떨쳐나선다면 극복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는것이다.

80일전투를 친히 발기하시고 온 나라에 혁신과 전진의 불바람을 일으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는 검덕지구 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시여 이 지구의 광산마을들을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릴 웅대한 구상을 피력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또다시 인민군대를 믿고 세기적인 방대한 투쟁과업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와 리상이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기 위한 80일전투의 불씨가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필승의 방략으로 국가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대진군의 진두에 서시여 인민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공화국은 80일전투의 승리로 2020년을 더욱 빛나게 장식하고 긍지와 희망속에 보다 밝은 미래를 펼쳐갈것이다.

김 광 억

인민이 주인된 나라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의 현실을 두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단체, 출판보도물들이 찬양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영국의 한 인사는 《이 세상 모두가 바라는 삶의 품이 바로 진정한 조국,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이런 행복의 요람에 누구나 다 안기지 못한다. 하다면 그러한 삶의 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곳은 인류사에 가장 걸출한 대성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은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여 조선을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락원으로 더욱 훌륭히 가꾸어가신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민주꽁고의 인터네트통신은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으로 선거되고있다.

평범한 인민들이 국가로부터 훌륭한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누구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마음껏 배우고있으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 등 인민적시책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그런가 하면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에 《녀성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조선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는 나라도 다름아닌 조선이다.》라는 글이 올랐다.

벌가리아신문도 《조선에는 자본주의사회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있다. 퇴폐적인것이 없고 자본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이 자체로 생산보장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의 위력이 충분히 발휘되고있다.》고 썼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조선은 인민이 주인된 나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정치사상강국이다. 력사의 온갖 풍파에도 끄떡없이 승리만을 떨치며 나아가는 조선은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시평

조선전쟁의 력사적진실은 감출수 없다

요즘 남조선에서 《조선전쟁은 남의 북침이 아니라 북의 남침》, 그 누구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들이 튀여나와 내외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그야말로 력사의 진실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국과 리승만도배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이라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고 부인할수도 없는 엄연한 력사의 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학자 부르스 커밍스가 쓴 《코리아전쟁의 기원》을 비롯하여 《코리아전쟁의 숨겨진 력사》, 《아메리카현대사》, 《1950년대의 인식》, 《움직이는것은 무엇이든 쏴라》 등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남침》나발을 떠드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서 명백히 력사에 대한 무지무도한 외곡이고 공화국에 대한 파렴치한 도발이 아닐수 없다.

애초에 미국의 거수기로 전락되여 공정성과 정의를 줴버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북침을 《남침》으로 오도하여 채택한 부당한 결의를 내들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변하고있는것도 얼토당토않은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다 아는것처럼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기에 앞서 공화국을 《침략자》로 몰아댈 《결의안》을 만들고 유엔에 제출할 준비를 미리 해놓고있었다. 이것은 1951년 6월당시 미국무성 유엔담당차관보가 조선전쟁과 관련하여 미국무성은 《유엔이 즉시 행동》하도록 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유엔에 가지고간다는것(남침했다는것)은 정해져있었다. 어떤것을 이야기할것인가 하는것도 정해져있었다. …그렇다. 결의안의 골자만은 작성하여두었었다.》라고 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런데도 그 누구의 《사주를 받은 북의 남침》이라고 하는 상전의 말은 앵무새처럼 곧잘 따라외우면서 침략의 장본인인 상전의 사주를 받은 반역의 무리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한 죄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채 장관벙거지를 쓰고 헤덤비는 남조선 당국것들의 처지야말로 불쌍하기 이를데없는것이다.

력사는 전쟁을 도발한 침략자, 도발자들이 저들의 죄행을 감추기 위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는것을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침략자, 도발자들이 부정한다고 하여 결코 력사가 달라지거나 전범자들의 죄악이 지워지는것은 아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화국인민은 전쟁승리를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민의 운명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제국주의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고 세계전쟁사에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그 누가 아무리 주절대여도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의미는 결코 훼손할수 없는것이다.

박 철 남

조선의 힘찬 발걸음

오늘날 진보적인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 혼연일체의 강국인 공화국을 가리켜 《행성의 미래》, 《인류의 미래》라고 칭송하며 《조선에서 련이어 창조되는 신화들은 행성의 제일 큰 사변이고 21세기의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되고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옳은 말이다.

적대세력들의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속에서도, 세계를 커다란 공포속에 몰아넣은 대재앙속에서도, 겹겹이 겹쳐드는 자연재해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조선.

인구수도 많지 않고 령토도 작은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여 저렇듯 무한한 힘을 발산하는것인가.

이 땅에 몸담고 귀기울여본다. 그러면 척척척 천지를 진감하는 발걸음소리가 들려온다.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온 나라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주고 적대세력들에게는 공포를 안겨주는 천출명장의 발걸음!

그이의 힘찬 발걸음에 서로서로 보폭을 맞추며 조선은 더 밝고 창창한 미래에로 내달리고있다.

행성을 울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힘차다. 보통 힘찬것이 아니라 행성을 쿵쿵 울리고 력사와 세계에 큰 자욱을 찍는 발걸음이다.

그이께서 한걸음 또 한걸음 내짚으실 때마다 조선의 모습이 달라지고 국력이 상승하며 세계가 놀라워서 감탄을 터치고있다.

그이의 발걸음따라 조선은 전진해왔고 그속에서 조선의 힘은 얼마나 강해졌는가.

이번에 성대하게 거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보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사들과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의 무장력은 정말 강하다.》, 《짧은 시간에 조선의 군사력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조선은 대국이다.》, 《세계는 변화되고있고 조선과 같이 새로운 강국이 출현하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

이 세상 누구나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공화국의 국가방위력,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수 없게 그쯘히 갖추어진 국가방위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마련된것이다.

조선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려고 그이께서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걷고걸으신 희생적인 헌신의 길이 과연 그 얼마이던가.

언제인가 한 과학자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시험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날이였습니다. 그날 시험사격을 지도하시기 위해 머나먼 날바다길을 헤쳐오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누구나 선뜻 뛰여들기 저어하는 풍랑세찬 바다물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시여 앞장에서 걸으시였습니다. 손에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저희들은 그이의 숭엄한 모습앞에 뜨거운것을 삼키고 또 삼키였습니다.》

좌 처절썩—

세찬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물속에 한걸음 또 한걸음 힘차게 찍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발걸음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듯싶다.

그렇게 찍고찍으신 발걸음이였다.

그렇게 가시는 길우에 국력강화의 특기할 사변들이 련속 새겨지고 이 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을 과시하며 주체탄들이 만리대공으로 치달아올랐다.

하늘의 별무리도 걸음걸음 따라서며 잠 못 들던 그 무수한 밤들과 길길이 날뛰는 파도길에 새겨진 못 잊을 사연 어찌 한두마디 말과 한두페지 글에 다 담을수 있겠는가.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는 위대한 인민의 모습이 꽉 차있었으리라. 그이의 가슴에는 사랑하는 조국이 꽉 차있었으리라.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크나큰 사명감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 힘차게 내짚어가신 국방력강화의 멀고 험한 길. 그 려정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주체무기들도 태여나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행성을 울리는 가장 힘있는 발걸음이다.

세월을 주름잡아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세월을 주름잡으며 번개같이 내달리는 전진의 발걸음, 비약의 발걸음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장군님의 강국건설구상을 년대별로 실현해나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비약하면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것!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불타오른 비약의 시간표였고 더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매시며 조국강산을 종횡무진하시는 그이의 힘찬 발걸음속도이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나날은 아침과 저녁이 다른 전변의 새 력사를 창조하며 달려온 잊지 못할 나날들이였다.

그 나날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헤쳐가신 풍랑사나운 바다길도 있었고 위험천만한 시험비행의 하늘길도 있었으며 궂은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으시였던 건설장의 험한 길도 있었다. 또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며 찾고찾으시였던 물고기비린내 풍기는 동해의 포구도 있었다.

이 땅우에 펼쳐진 놀라운 기적과 전변의 새 력사는 이렇게 마련된것이였다.

그이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누구나 부러워할 인민의 무릉도원이 펼쳐졌다.

자신께서 고생하시더라도 인민들의 생명을 끌까지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자연재해가 류달리 많이 들이닥치였던 이해에 온 나라의 피해지역들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자취는 또 그 얼마이던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큰물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 황해남도의 태풍피해지역을 돌아보시며 피해상황을 료해,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고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 …

뜻밖의 재난을 당한 주민들, 그들은 누구나 자기들곁으로 다가오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발걸음소리를 들었다. 재난을 당한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제일먼저 달려가신 인민사랑의 최고화신 김정은원수님의 헌신의 발걸음소리를.

그 발걸음은 폭우와 태풍을 맞받아가는 걸음이였고 그이 발자욱 찍으신 길은 진탕길, 두렁길, 돌서덜길, 언제 무너질지 모를 철길로반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인민사랑, 헌신의 자욱자욱이 있어 자연의 광란이 폐허로 만들다싶이했던 강북리와 대청리, 홍원군을 비롯한 피해지역들에 이전과는 대비할 수 없는 훌륭한 새 집과 새 마을들이 불과 수십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온 나라가 날마다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다.

오늘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이으시며 창조와 전변의 력사를 끝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세월을 주름잡는 그이의 발걸음속도는 조선의 전진속도이다.

멈춤을 모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순간도 멈춤을 모른다.

그이라고 왜 힘들지 않으시랴. 하지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크나큰 사명감,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열정으로 그이는 애민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신다.

언제인가 잠시의 휴식도 없이 사업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한 일군은 너무 무리하시지 말아달라고, 제시간에 주무시고 식사도 제때에 하셔달라고, 이것은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심정이라고 말씀올리였다.

그 일군의 진정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맙다고, 자신께서는 일없다고 하시며 어버이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일하여도 성차지 않고 하루가 24시간밖에 안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였다.

또 어느해인가는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나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바로 이런분이시기에 인민들이 단잠에 든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찌물쿠는 삼복의 무더위와 손발이 얼어드는 추운 겨울에도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언제나 인민을 찾아가시는것 아니겠는가.

인민들과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거룩한 령도의 자욱우에 솟아난것이다.

그렇게 새겨가신 발자취들을 더듬어보느라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가.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땀이 비오듯 하던 어느해 여름날. 소문도 없이 어느 한 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농장의 실태를 료해하시다가 한 남새작업반의 온실에도 들리시였다. 그이의 옷이 땀으로 푹 젖어드는것을 본 농장의 일군이 온실안의 온도가 43℃나 되는데 어서빨리 밖으로 나가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허나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일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곳에도 다 가보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그이께서는 인민을 찾아,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걷고 또 걸으시였다. 그 발걸음은 인민들이 리용하는 무궤도전차에도, 바다가 멀리 수산사업소의 차디찬 랭동저장고바닥에도, 수수한 운동화를 신으시고 찾으셨던 조국땅 북변에도 이어졌다.

참으로 쉬임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이 땅 그 어디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수도에도, 멀리 지방에도, 풍랑사나운 파도길과 머나먼 섬마을, 나라의 최북단 한끝에도.

그 길에서 뵈옵는 경애하는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 우러르며 인민들은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시련속에서도 멈춤을 모르는 위인의 발걸음.

우리는 걱정없이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천리 먼곳이라도, 험한 가시발길이라고 하여도 끌까지 찾아가시는 원수님이시다.

그래서 그이의 헌신의 발자욱은 좋은 날, 마른 길이 아닌 궂은날, 험한 길에 더 많이 새겨져있다.

* *

조국땅 방방곡곡에로 끝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

그이의 발걸음은 무한한 정과 사랑을 안고 인민에게로, 인민의 결으로 끊임없이 다가가시는 애민헌신의 발걸음이다.

인민이 기뻐하면 그 행복의 웃음소리를 들으시려고 달려가시고 인민들이 뜻밖의 재해를 당하면 그 고통과 아픔을 가셔주시려 천리라도 만리라도 한달음에 달려가시는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언제나 힘차게 내짚으시는 그이의 발걸음이 있어 이 땅 어디서나 눈부신 기적과 전변이 창조되고있는것이다.

정녕 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떨쳐가는 힘있는 발걸음, 인민을 행복의 단상에 올려세우는 헌신의 발걸음, 창조와 변혁을 련이어 안아오는 기적의 발걸음에 발맞추어 조선은 나아가고 더 큰 승리의 밝은 래일이 오고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황홀한 10월의 밤하늘가에 울려퍼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절절하신 눈물젖은 그 음성 **《고맙습니다!》**.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이처럼 벅차고 환희로운 밤 이 자리에 서고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하실 때, 무엇보다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실 때 온 광장이 울먹이였고 세찬 격정의 파도로 출렁이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기에

지난 10월의 경축광장에서 하신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오늘도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무엇보다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보내시는 그이의 음성에 온 나라 인민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였다.

류례없이 다사다난하고 엄혹했던 올해에 악성병마와 혹심한 자연재해로부터 나라와 인민을 지켜내신 그이의 안광에 눈물이 맺혀있는것을 본 사람들은 더욱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고맙습니다!》

과연 누가 드려야 할 인사인가. 어느분이 받으셔야 할 인사였는가.

자식들에 대해 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자식들을 해치는 자그마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것은 어머니뿐이다.

그 심각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초기에 벌써 명철하게 꿰뚫어보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하여 온 나라에 철통같은 방역전선을 형성하도록 인민사랑의 조치를 거듭 취해주시였다.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그이께서 지새우신 밤은 얼마였고 지도하신 당중앙위원회 회의들은 그 얼마나 많은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험한 길도 많이 걸으시였다.

오늘도 은파군 대청리에 가면 물이 채 찌지 않은 감탕길로 부모들보다 먼저 차를 몰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차바퀴자리가 남아있는듯싶고 금천군 강북리에 가면 강북리가 큰복을 받아 강북리가 되였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사람들속에서 전해지고있다.

행복한 날에 받을 때는 다 알고 받는 사랑인줄 알았지만 어려운 날 받고보니 그 사랑의 깊이와 열도에 대하여 너무도 몰랐다는 민망함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떠나시는 길을 따라서며 고마움의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인민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먼저 인사를 보내주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자애에 넘친 그 모습에서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뵈웠다.

공장과 협동벌을 찾으시면 기름묻은 로동자들의 손과 거쿨진 농장원들의 손을 스스럼없이 잡아주시며 수고한다고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고 학교에 가시면 후대들을 키우느라 정말 수고가 많다고 교육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던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어버이수령님처럼 한평생 인민을 하늘로 떠받드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속에 맞이한 새해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시는 새해의 서한을 한자한자 쓰시였다.

인민들이 먼저 드려야 할 새해의 인사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벽 2시 전체 인민에게 먼저 새해의 인사를 하시였다.

그것은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인민들에게 보내주시는 그이의 힘과 격려의 인사였고 사랑하는 인민을 끌까지 품어안고 인민을 위한 위업에 자신의 한몸을 기꺼이 바치시려는 의지와 맹세의 선언이였으리라.

령도자가 인민에게 먼저 하는 인사!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 숭고하고도 격동적인 화폭은 령도자가 인민을 하늘로 떠받들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기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경이적인 현실이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고마움에 차넘치는 진정 정중히 삼가 올린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이민위천의 력사는 변함없이 흐르고있음을 온 세계가 실감하였으며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남조선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데 대해 크게 부각하여 보도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마움, 감사, 고맙다 등의 표현을 여러차례나 반복하시고 인민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보내신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의 무병무탈에서 더없는 고마움과 기쁨을 느끼시는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공화국은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행복의 웃음소리 드높은 부러움의 나라, 찬탄의 나라로 광휘로운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사람들은 기쁘거나 괴로울 때면 가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싶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꾸밈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전부를 털어놓고 잊을번 한 사연까지도 다 이야기하고싶은 그런 심정을 우리는 진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진정이란 믿고 의탁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거짓이 없는 참된 정이나 진실한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늘 인민들에게 진정을 터놓으신다.

진정

지난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도 그이께서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고마움에 차넘치는 진정 정중히 삼가 올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마음속에 언제나 꽉 차있는것은 인민의 모습이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의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위해주고싶으신 인민의 모습이.

하기에 그이께서는 늘 인민들에게 마음속 진정을 터놓으신다. 기쁜 일이 생겨도, 괴로운 일이 생겨도.

그리고 인민의 목소리에서 기쁨을 느끼신다. 힘과 용기를 얻으신다.

달리는 렬차안에서 자연재해를 당한 주민들을 생각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 수도의 당원들에게 한자두자 쓰시였던 사랑과 믿음의 공개서한.

이 공개서한도 수도의 당원들을 믿고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를 하루빨리 끝내여 인민들이 안정되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려는 자신의 진정을 그대로 터놓으신 사랑의 서한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고패치는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 어버이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수도의 당원들이 재해지역에 달려나가고 기적같은 승리의 보고를 련속 올리였을 때 그이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였는가.

인민이 다지는 맹세, 령도자께 드리는 승리의 보고, 피해지역마다에서 인민들이 터치는 기쁨과 감격의 만세소리,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고 그이만을 끌까지 믿고 따를 이 나라 인민의 솔직하고 깨끗한 진정의 토로이며 격앙된 민심의 분출이다.

령도자는 인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담아 진정을 터놓으시고 인민은 령도자를 끌없이 신뢰하고 흠모하며 마음속 진정을 삼가 아뢰이는 바로 이것이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정으로 하나가 된 공화국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참모습이다.

이 오가는 뜨거운 진정을 누가 막을수 있으랴. 이 굳건한 혈연의 관계를 누가 끊을수 있으랴.

김문성

숨결도 하나, 보폭도 하나

이제는 10월도 다 갔다.

앞으로 이해는 달력을 두장 번지면 마감한다.

건설장이나 생산현장을 비롯하여 어느 부문, 어느 분야에서나 총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이 벌어지고있다.

80일전투에로 부르신 령도자의 호소에 전민이 하나같이 호응하여 떨쳐나섰다.

지나온 날과 달은 이 나라 인민이 예상치 않은 도전과 장애를 돌파하여야 하는 어렵고 힘에 부친 강행군의 련속이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과 재해속에서도 국가와 인민은 일치단결하여 안정적인 방역형세를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생산과 건설의 동음을 울리였다.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을 다그쳐 완공하였고 황해남도물길, 발전소, 간석지건설 등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성과물들을 마련하였으며 뜻밖에 엄습한 태풍과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재해복구전투를 과감히 벌리였다.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은 말그대로 국가보위전, 인민사수전, 멸사복무전의 낮과 밤의 련속이였다고 할수 있다.

전체 인민이 첩첩히 막아선 엄청난 도전과 난관을 정면돌파하며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바꿀수 있게 된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선견지명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인민을 위하여 떠안은 고생을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가 직면한 엄중한 도전과 난관을 타개할 현명한 방책들을 제시하시고 방역전과 피해복구전, 국가발전전략목표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께서 국가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무한한 헌신으로 날과 달을 보내시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기울이신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었다.

분초가 천금같이 귀중한 그이의 시간은 대청리와 함경남도의 피해지역, 검덕지구의 피해복구현장에서 지나갔고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불면불휴의 날들은 금천군, 김화군과 같은 피해지역들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돌아보신 로고속에 이어지였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그이의 열화같은 인민사랑과 헌신에 의하여 모든 피해지역들에서는 그이께서 바라시는 높이에서 수재민들의 의사와 생활상요구에 부합되는 살림집들이 설계되고 시공되게 되였다.

철원군, 평강군, 창도군, 이천군을 비롯한 강원도의 피해복구한 새 주택들과 마을들, 개성과 황해남북도의 피해지역들에서 맞이한 새 집들이경사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간과 발걸음에 숨결과 보폭을 맞추며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의 애국열과 땀방울이 슴배여있다.

공화국인민이 난관을 맞받아 뚫고 재앙과 불행을 가시며 꿋꿋이 강행돌파하여온 방역전과 피해복구전, 생산돌격전의 강행군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의 흘러가는 시간은 올해를 재난과 재해의 해가 아니라 투쟁의 해, 전진의 해, 단결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강행군의 련속이다.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주름잡아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희망찬 래일을 마중가는 귀중한 시간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따르며 혼연일체가 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공화국인민에게는 창조와 전진의 시간, 기적과 승리의 시간만이 있다.

그 어떤 장애와 도전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견인불발하여, 다른데를 쳐다보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믿고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일체가 되여 승리를 더 큰 승리로, 기적을 더 큰 기적으로 이어갈 올해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올해를 자랑찬 성과와 기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전인민적공격전, 총결사전을 벌리고있는것이다.

리 강 림

기적창조의 원천

세계가 경탄해 마지 않는다.

지경과 대양을 넘어 큰 나라, 작은 나라, 발전된 나라, 덜 발전된 나라를 가림없이 무섭게 삼켜버리는 악성비루스의 전파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불안과 공포의 소용돌이속에서 헤여나지 못하고있는데 조선만은 돌풍광야에 싱싱한 거목처럼 끄떡없이 서있다. 자연의 광란으로 지구의 곳곳에서 재해민들의 곡성과 한숨이 터져나올 때 조선에서만은 모든것을 쓸어간 폐허우에 사회주의본보기 문화주택이 분초를 다투며 기적같이 솟아오르고 새살림을 편 집집의 창가마다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이 가득 비껴흐른다.

지구상에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어마어마한 군사장비들을 쌓아놓고 강대함을 뽐내는 나라도 있고 광활한 령토와 억대의 자원우에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나라, 경제대국이라 일컫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세계를 휩쓰는 무서운 대재앙앞에 속절없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엄연한 사실앞에서 조선의 현실은 참으로 경이적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수 없다.

결코 하늘이 선사한 기회도, 우연도 아니다.

그 신비로운 기적은 다름아닌 일심단결의 위력에서 오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이 있고 그이만을 믿고 억척같이 뻗치고 일어나 당과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진실한 인민, 령도자의 부름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울 신념과 의지로 만장약된 일심의 대군의 영웅적투쟁이 있어 중중첩첩 막아서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산산이 부셔버리며 어머니당의 생일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 대경사의 날로 환희롭게 장식할수 있었다.

기쁨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진 10월의 경축광장을 잊을수 없다.

무적필승의 기상을 떨치며 지축을 울리며 나아간 열병종대, 위대한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인민의 강용한 기상이 넘쳐흐른 군중시위,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철의 의지가 타오르는 불길이 되여 어둠을 밝힌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 …

보기만 해도 새 힘이 용솟음치는 일심의 대화폭이다.

허나 바란다고 해서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것이 조선의 일심단결이다.

세계정치사에 단합을 표방하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정치강령과 리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부와 향락을 떠들며 민심을 유혹하는 설교들이 지구공간을 어지럽게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단결, 그 단결을 조선은 일심단결이라는 거대한 화폭으로 이번 10월의 경축광장에서도 펼쳐보인것이다.

감격도 뜨겁다.

자기의 령도자를 우러러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목메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 그것은 인민의 마음속에서 끝없이 샘솟는 흠모심의 분출이였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 따뜻이 품어주고 보살펴주시는 령도자께 인민이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고 고마운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인민의 활화산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였다.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밑바탕에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놓여있다.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시고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내놓아도 인민을 위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며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영광의 자리에서 하신 연설에서도 인민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절절하게 피력하시고 연설의 마지막도 《위대한 우리 인민만세!》로 맺으시는 자애로운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이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눈물을 터치지 않았던가.

하기에 이 나라 인민 누구나 그이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의 령도만을 따른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여 조선은 사상과 뜻, 정과 의리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거대한 대하를 이루고 힘차게 앞으로만 내달리고있는것이다.

최 철 호

강원땅에서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다.

인민사랑이 낳은 현실

자연의 광란이 휩쓸었던 개성시와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새로 일떠선 행복의 보금자리에 입사한데 이어 천지개벽된 강원땅에 황홀하게 솟아난 사회주의선경마을의 새 살림집들,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울려퍼지는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들.

자연의 뜻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불행이 아니라 한날한시에 복을 받아안는 이런 꿈같은 현실을 이 땅이 아니고서야 어디에서 또 볼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 인민을 위함이라면 뼈를 깎는 고생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를 지니시고 멸사복무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낳은 경이적인 현실이다.

자연의 광란으로 초래된 수재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셔주시려 위험한 피해현장을 남먼저 밟으시며 현지에서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신 인민의 어버이.

다른 나라 같으면 자연의 대재앙에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는 고사하고 재난마저 정파적야욕실현의 도구로 삼고있지만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가 계시기에 자연의 광란이 휩쓴 나라의 곳곳마다에서 보다 훌륭한 인민의 삶과 행복의 터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는것이다.

재난의 흔적을 가시며 선경마을의 자태가 드러난 은파군 대청리를 찾으시여 자기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선언하시고 사회주의향기를 내뿜는 피해복구한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시여서는 인민의 보금자리가 태여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며 엄청난 도전과 재앙들로부터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류례없는 인민사수전을 펼치신 위대한 어버이의 헌신과 로고속에 자연의 광란으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만복의 주인공이 되였다.

정녕 인민을 자신의 살붙이, 한식솔로 여기시며 인민이 겪는 일시적인 애로를 두고도 그토록 마음쓰시고 피해지역의 살림집완공이 그리도 기쁘시여 행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제일먼저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모신 공화국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위문편서

지금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는 피해복구전역으로는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마음들이 담긴 위문편지들이 매일과 같이 전해지고있다.

편지를 보내주는 사람들중에는 로동자, 사무원들도 있고 나어린 꼬마들도 있으며 가정주부도, 청년대학생들도 있다. 누구나 자신들도 피해복구전선에 서있는 심정으로 뜨거운 진정이 담긴 편지를 써보내고있다.

위문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비록 서로 모르는 사람들사이이지만 령도자의 인민사랑의 뜻과 구상을 꽃피우기 위해 복구건설장에서 날마다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군인들을 자기의 친형제, 친자식처럼 느끼며 정을 담아, 사랑과 믿음을 담아 한자두자 편지를 써보내고있는것이다.

온 나라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인민과 군대가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감동적인 화폭이다.

위문편지들에는 하루빨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는 치렬한 복구전을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안겨주려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들이 글줄마다에 력력히 어리여있다.

편지들에는 멀고 험한 검덕과 홍원, 김화땅을 비롯한 피해복구지역들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TV화면에서 뵈옵던 감격과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포부와 리상이 실현되게 될 공화국의 밝은 래일에 대한 신심과 희망이 담겨져있다.

소년단원들도 군인건설자들에게 진정어린 위문편지를 보내였다.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 멋진 학교도 지어주고 큰물에 불어난 내가에서 유치원아이들을 등에 업어 건늬워준 인민군대아저씨들을 그려보며 어서 커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만을 드리는 인민군대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학생소년들의 편지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병사의 사랑을 더욱 불태워주고있다.

온 나라의 진정이 담긴 위문편지들은 인민군군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구절구절 혈육의 정이 넘치는 편지들을 받아보면서 인민군장병들은 인민의 군대로서의 긍지를 다시금 새기고있으며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인민들에게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줄 완공의 날을 앞당겨나갈 열의를 드높이고있다.

혈연의 정이 뜨겁게 오가는 피해복구지역들에서 완공의 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한 일 혁

단상 새집들이를 보며

흔히 사람들은 집을 가리켜 안정된 생활을 담보해주는 삶의 보금자리라고 말한다.

나는 새도 둥지가 있어야 깃을 편다고 집이 없이야 어떻게 생활의 안정을 찾으며 가정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할수 있겠는가.

집없는 나그네의 신세는 참으로 처량하기 이를데없다.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집이지만 누구에게나 그것이 차례지는것이 아니다.

이 행성에는 집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하늘을 지붕삼아 거리의 구석구석에서 쪼그리고 한밤을 지새우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지맥을 이은 남조선에도 온전한 제 집이 없어 남의 집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하지만 이 땅에는 집이 없어 눈물흘리고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이 없다. 횡포한 자연의 광란으로 뜻밖에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해도 국가의 배려로 더 크고 훌륭한 새 집들을 받아안고 기쁨에 겨워하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얼마전 동해기슭에 아담하게 건설된 함경남도 홍원군의 운포로동자구, 경포로동자구마을들의 새집들이경사를 목격하면서도 감동이 컸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덩실한 새 주택에 입사중을 안고 들어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한껏 어리여있었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집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합니까. 그런데 재해를 당해 잃었던 집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이처럼 훌륭한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았으니 막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우리 원수님이 제일이시고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사회주의 큰집이 있는한 우리는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현지의 한 주민이 터친 이 목소리는 그 한사람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이 매일 매 시각 느끼고 터놓고싶어하는 심장의 웨침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피해지역들에서 벌어지는 복구건설전투는 언제나 마음의 첫자리에 인민을 품어안으시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구상하시고 펼치실수 있는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다.

그이의 공개서한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수도당원돌격대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온 나라 인민의 물심량면의 지원에 의해 운포로동자구와 경포로동자구는 물론 온 나라의 피해지역들에 이전보다 더 멋있고 더 훌륭한 마을들이 시간을 다투며 들어앉고있다.

진정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있어 인민이 사는 훌륭한 새 살림집들은 나날이 늘어나고있으며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는 이 강산에 가득 넘쳐나고있다.

김 영 범

사대굴종외교의 후과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이 주변나라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 대외적환경을 개선하고 외교적고립에서 벗어나보려 하지만 차례지는 멸시와 랭대로 하여 속앓이를 하고있다고 한다.

《혈맹》이라는 미국으로부터 갖은 모멸과 랭대를 당하고있는것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동맹강화》, 《확실한 동맹태세》를 읊조리며 분주하게 미국을 찾아다녔지만 무거운 부담만 걸머지고 수심에 잠겨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여론화되고있는 미국과의 《동맹불화》설을 가라앉히고 《동맹대화》신설, 신형무기개발을 위한 연료구입 등에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보려고 고위관계자들을 련이어 미국에 파견하며 그 무슨 《리해》를 구하고 《합의》를 한답시고 분주탕을 피웠다.

하지만 미국은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해치우고 방위비분담금증액과 미국산무기구입, 남조선주둔 미군의 훈련보장 등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담은 《청구서》만 잔뜩 안겨주었다. 미국무성 장관의 남조선행각계획을 비롯하여 미리 약속하였던 외교일정들도 아무런 설명없이 취소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을 난처하게 만든 미국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와 언론들은 70여년간 지속된 친미사대와 저자세외교의 후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사실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평등한 국가관계》, 《대등한 동맹》이라고 떠들어도 미국은 상대를 언제 한번 《동맹국가》로 대접해준적이 없으며 저들의 노복, 하수인정도로만 취급해왔다.

멀리 갈것도 없이 남조선당국이 《공약》으로까지 내세우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미국은 2018년에 현 남조선당국자들과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반환조건을 검증하기로 《합의》하였었다.

하지만 얼마전에 벌어진 제52차 남조선미국년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특정시한을 정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은 군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고 하면서 초기계획대로 추진하자는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로골적으로 묵살하였다.

뺨을 맞은 남조선당국이지만 상전의 눈치를 보느라 불평 한마디 못했고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라는 표현에 주목해달라며 구구한 변명만 늘어놓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은 당국이 막심한 결과가 차례졌음에도 미국에 비판도 항의도 하지 않고있다, 미국대신 회의전말을 해명해주거나 견해차이를 애써 무마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외교참사는 뿌리깊은 굴종외교풍조가 불러온 후과라고 비난하고있다.

남조선은 미국으로부터만 외교적무시와 배척을 당하는것이 아니다.

주변나라들과의 《관계개선》에 무진 애를 쓰고있지만 쓴 오이 보듯 하는 랭대에 부딪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남을 탓할것 없이 제 대접 제가 받은것이다.

과거 남조선이 미국이 벌려놓은 침략적인 웰남전쟁과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적극 가담해나선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세계헌병》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세계 각지에 벌려놓는 군사작전들과 연습들에 병력과 군사장비들을 뻔질나게 파견해주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남조선의 속성을 잘 알고 침략적인 세계전략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것을 강박하고있다.

굴종의 사슬을 목에 매고 미국이 잡아끄는대로 움직이는 주대도, 자존심도 없는 이런 남조선을 어느 누가 믿고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려 하겠는가.

남조선 각계가 이 모든것이 사대굴종외교의 후과라고 비평하는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백 광 수

민족을 모독하는 친일행위

과거에 저지른 반인륜적죄악을 한사코 부정하고 사죄와 배상은커녕 세기가 바뀐 오늘도 저들의 과거죄악을 철면피하게 회피하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대는것이 일본이다.

지금도 일본은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남조선법원의 배상판결을 걸고들며 남조선에 가한 경제적제재를 중지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살이로 내몬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고발하는 《평화의 소녀상》들을 철거해야 한다며 삿대질을 해대고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극일》, 《반일》을 입에 달고 살더니 새로 출현한 일본당국에 《축하서신》을 보내고 일본기업가들의 《입국》제한조치를 완화해주다 못해 《악화된 대일관계해소》, 《량국간의 협력증진》을 부르짖고있는 판이다.

오늘 일본당국의 과거죄악부정책동은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지난 9월말 일본내각 관방장관은 《평화의 소녀상》이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 설치된데 대해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걸고들면서 일본군성노예문제가 《국제사회의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망발을 줴쳤다.

10월초에는 일본외상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국장을 만나 기구가 《군함도》를 비롯한 조선인강제징용관련시설들에 대한 세계문화유산지정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특히 일본외무성은 10월 3일 남조선당국에 강제징용피해자배상을 위한 일본전범기업의 자산매각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면 11월에 서울에서 진행될 남조선, 중국, 일본의 수뇌자회의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오만무례하게 놀아댔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 각계는 《일본이 뭐길래 조건을 내대는가.》, 《일본기업들의 자산을 빨리 매각하자.》 등의 글들을 인터네트에 올리며 강하게 반발하고있으며 당국이 강력한 대응책을 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민심의 분노를 외면하고 남조선일본관계개선을 운운하며 비굴한 태도로 나오고있으며 일본주재 남조선대사라는 사람은 《국정감사》라는데서 《아베시절보다 일본측이 조금 더 유연해진것 같다.》는 얼빠진 소리만 늘어놓았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표방해온 《반일》, 《극일》이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하며 친일근성에서는 《토착왜구》로 지탄받는 극우보수매국노들과 짝지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하기에 일본은 더욱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면서 이전 총리 아베가 군국주의망령이 떠도는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매국배족이 다른게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 인류가 경악하는 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성근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 천년숙적 일본에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행동하는것이 바로 매국배족이고 민족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일본이 감행한 반인륜적죄악과 민심을 거스르는 그 어떤 매국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신 은 실

만필 할줄 아는것이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국민의힘》을 두고 《무능정당》, 《불집만 일으키는 야당》이라고 비난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있은 《국정감사》를 두고 남조선인민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가요.

…

시민1: 자네 요즘 《국정감사》를 보나?

시민2: 그게 《감사》일게 뭔가, 강짜지. 《국민의힘》 눈 딱 감기더구만. 증인도 없어, 증거도 없어, 뒤간에 간 놈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안깐힘 쓰는 꼴 그대로더군.

시민3: 그러게나, 국민이라는 우리것을 도적질해서 당명이나 고치면 뭘 해, 우리에 대한 소린 한마디도 없고 이제껏 떠들어온 누구 아들문제, 누구 가족문제하면서 맹탕소리 하고 또 하고…

시민2: 원체 꼬부라진 나무는 그림자도 굽은 법이야. 썩고 부패한 몸뚱이에 얼룩덜룩 색칠하고 국민이라는 종이꽃을 붙였지만 조막손이 닭알 훔칠 궁리하는 격이지 본성이야 달라지겠는가.

시민1: 그러길래 사람들이 《혁신》이 아니라 변신이고 《변화》가 아니라 만화라구 하질 않나. 그런데도 계속 그 장난이구만.

시민2: 뭔가 달라졌다 하는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거지, 종이꽃도 꽃이라구 벌과 나비가 날아들길 망상하면서…

시민3: 체,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인분구뎅이같이 구린내나는 그런 곳에야 쉬파리밖에 더 모이겠나, 《국정감사》인지 뭔지 보니까 속이 울컥하더구만.

시민1: 그래, 민생은 헌신짝버리듯 팽개치구 세살 난 아이 밸부리듯 강짜를 쓰질 않나, 세간에 나도는 신세타령노래나 틀어놓질 않나, 《국정감사》가 아니라 《극장관람》가서 풍자극을 보는것 같더군.

시민2: 비루먹은 개새끼는 아무리 때려몰아두 담장을 넘지 못하는 법이야. 당을 이끌 변변한 인물두 없어 여든살 난 늙은이를 꿩대신 닭이라는 격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자리에 앉히고 이 새, 저 새 《정치철새》들만 모인 곳이니 그게 어디 당인가? 오합지졸이지.

시민1: 그러구보니 《국민의힘》이란 이름에두 《당》이란 말이 없구만, 그런것들이 뭘 변변히 해내겠나.

시민2: 모르는 소리, 일이 잘 안되면 삭발하는거야, 그것두 집단적으로.

시민3: 그거야 권력야심과 부패심보가 가득한 머리통에서 돋아난 부스럼을 깎아버린거지. 또 자랄건 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삭발이 아니고 《부패감추기벌초》라고 하지 않았나.

시민2: 그게 안 먹어들면 단식하는거야. 비록 한주일정도이긴 하지만.

시민1: 아, 《황제단식》, 《치료용단식》이라고 비난받았다는 그거, 어느새 1년이 되여오는데 그거 또 할가? 실수도 반복하면 한심한 실력으로 인정된다던데…

시민2: 그럼 장외투쟁에 나갈수밖에, 보수의 장끼가 부정부패다음에 장외투쟁이라구 할수 있으니까.

시민1: 삭발이든 단식이든 하겠으면 하구 그 장외투쟁만은 제발 말려야 해. 그때문에 거리엔 교통장애가 오구 사람들은 청각장애가 생기구, 나두 두통에 신경통에 약만 퍼먹다 소화장애까지 걸렸다네.

시민3: 어디 그뿐인가, 가뜩이나 《막말국회》, 《깡통국회》, 《란장판국회》라고 욕처먹는 《국회》가 마비되지, 네편내편 서로 눈을 부릅뜨기에 사회가 등분되고 혼란에 빠지지.

시민1: 너무 크게 말하지 말게. 《국민의힘》것들이 들으면 《인신공격》, 《정치공세》라고 하면서 《특검》을 하자고 할거네.

시민2: 괜찮아. 그것들의 귀는 상전과 재벌들에게만 열려있지 우리의 말은 개방귀만큼도 여기지 않네. 얼마전에 《국민의힘》소속 《국회》의원에게 제발 쌈은 그만하구 시민들의 요구를 좀 들어달라고 했더니 뭐라구 했는지 아나?

시민1, 3: 뭐라구 하던가.

시민2: 《임자 나하구 만난적 있던가?》 하더군.

시민3: 그 소리 누구의 말과 비슷하다, 아, 지금 《503》을 달구 감옥에 처박힌 《얼음공주》의 말이 아닌가.

시민1: 역시 그년에 그놈이군, 그러니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는 소리만 듣지.

…

보셨지요, 자루속의 송곳은 감추지 못한다고 《국민의힘》것들이 아무리 당명이고 색갈이고 바꾸며 변신해도 민심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까마귀 백번 목욕을 해도 백로가 될수 없는것처럼 민생보다 저들의 집권야욕과 향락밖에 모르는것이 바로 국민의 너울을 쓴 보수패당입니다.

그것들이 할줄 아는것이란 변신과 변장, 사기와 협잡, 발목잡기와 부정부패입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제명을 재촉하는것이지요.

꼭 제 조상들처럼.

김 정 혁

남조선시민단체들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지난 22일 《4.16진실빼스》와 대구시의 4.16련대단체들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박근혜의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데 대한 요구서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요구서전달조차 거부하고 조롱식의 언사를 한것은 〈국민의힘〉이 국민전체를 우롱하고 폄훼한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진실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 요청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추천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4.16진실빼스》는 대구지역 시민들과 함께 《국회》동의청원 10만명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행동과 관심을 호소하는 간담회, 문화제, 로동투쟁현장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정치풋내기의 미련한 권력야망

남조선에서 검찰개혁이 막을수 없는 민심의 흐름으로 되고있는 속에 검찰총장 윤석열이 그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정치적야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얼마전에 있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은 대형금융사기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자기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지휘박탈은 중상모략에 의한 위법이고 비상식적이라고 기염을 토했다고 한다.

이렇게 아래웃턱도 모르고 방자하게 말장난을 부리던 윤석열은 《퇴임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요사스러운 말을 했다는것이다.

검찰개혁을 저지파탄시키려고 날뛰다 못해 보수의 우두머리로 나설 흉심을 드러낸 망발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 각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한사코 방해해온 죄과에 대해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치의 《가갸거겨》도 모르는 풋내기가 정치판에 명함을 들이밀어보겠다?

삶은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정치만화감이다.

과연 제 푼수나 알고 말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 내뱉았는가 하는것이다.

윤석열로 말하면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장사치처럼 그 무슨 《원칙》과 《소신》의 간판뒤에서 검찰권력을 악용하여 제 일가와 수하족속들을 감싸돌던 부패덩어리이다.

이 권력, 저 권력에 기생하면서 종당에는 검찰총장의 자리에까지 올라선 음흉한 야심가이고 상대를 사정없이 물어메치는 기질이 몸에 푹 배인데다 사기와 협잡의 능수인 그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운운한것자체가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한갖 검사출신이 미련하게도 권력야망을 시사한것도 남조선인민들로서는 허구픈 일이겠지만 땅바닥에 떨어진 떡고물같은 인물을 두고 박수를 쳐대는 《국민의힘》것들은 참 가련하다는 말밖에 나가지 않는다.

윤석열이 자기의 속심을 드러내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대부분이 《야권에 녀왕벌이 나타났다.》고 환성을 지르면서 《명백한 정치활동개시 선언》,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윤석열을 적극 추어주었다는것이다.

하기는 인물이 없어 내부가 패싸움으로 하루도 편할새 없고 어느 누가 저들을 지지해주지 않겠나 하여 눈에 충혈이 지도록 살피고 발이 닳도록 구걸하며 다니는 것들이니 윤석열 같은 협잡군, 야심가도 넝쿨채 떨어진 호박처럼 보일것이다.

하지만 지금 남조선 각계는 윤석열의 망발에 대해 공안검사경력을 자랑하며 정계에 뛰여들어 보수세력의 돌격대장노릇을 하면서 삭발도 해보고 단식도 해보고 장외투쟁도 하며 푼수없이 날치다가 민심의 버림을 받은 황교안과 일맥상통하다고 침을 뱉고있다.

오죽하면 꿈틀거리는 권력야망을 품고 《대권》을 노리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중진이라는것들도 이러한 정치적인 검찰총장은 전무하다, 윤총장의 퇴임의사가 무덤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일수 있다, 보수계정치를 흔들 《녀왕벌》이라고 야유인지 칭찬인지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겠는가.

그나저나 윤석열은 오리가 홰대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황교안을 보고 《바지입은 박근혜》라고 야유했었는데 이제는 《바지입은 녀왕벌》이 생길 판이다.

버릴수 없는 권력야망은 이렇게 정치풋내기도 미련하게, 미욱하게 만드는 모양이다.

김 수 미

여당에서 파견한 《트로이목마》?

예로부터 황이 든 소는 인차 푸주간신세를 지기마련이다.

지금 남조선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김종인의 신세가 꼭 그 격이다.

《혁신》인지, 《쇄신》인지 하면서 《국민의힘》이 《인기》를 좀 올렸다고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지지률은 깨진 항아리의 물처럼 줄어들고있으니 내부의 불만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로망한 늙은이의 고집인지 독선과 독단만 부리며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유능한 《대통령》후보감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인데 아직도 똑똑한 대안 하나 변변한게 없고, 누구를 추천하면 채머리만 흔들고, 그러니 아래것들이 볼이 부을수밖에 없는것이다.

오죽하면 그가 내세워주던 초선의원들까지도 지금의 독판치기식 당운영방식이 한계에 직면하였다고 두덜거리며 항의를 했겠는가.

이미전부터 김종인을 《믿지 못할 인물》로 탐탁치 않게 보아오던 중진들은 당장 전당대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새 지도부를 내와야 한다고 눈을 부라리고 원로들도 저마끔 김종인이 노는 꼴을 보다못해 그러다 망할수 있다고 《점잖게》 경고했다는것이다.

지어 일부는 여당이 파견한 《트로이목마》가 아닌가 의심까지 한다고 한다.

늙은 《정치철새》의 어쩔수 없는 신세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두 절간의 개처럼 똑똑한 정견이나 리념도 없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배신을 밥먹듯 한데다 그런 경력을 《경륜》과 《치적》으로 자랑해왔으니 누가 쉬이 믿어주겠는가.

더우기 중풍만난 사람처럼 이 사람도 안돼, 저 사람도 안돼 하는 속심에는 제가 다음기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속심때문이라는 소문도 돌고있으니 말이다.

처음에는 《구세주》라도 된듯 떠받들던 《국민의힘》것들도 이제는 다 파먹은 김치독으로도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더이상 믿을수 없다, 그만 물러나라고 대놓고 받개질을 하는 정도이니.

늙마에 자식들 뒤바라지나 잘하던지, 부양이나 곱게 받았으면 여생이라도 편할것인데 야욕은 어쩔수 없는 모양이다.

산송장같은 《국민의힘》에 《혁신》의 향수를 뿌리며 살려보겠다고 버드럭거리고 야망실현의 기반으로 만들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고목에서 꽃을 피우겠다는 어리석은짓이다.

그런 늙은이한테 비루한 운명을 맡기고 집권야망을 망상하는 《국민의힘》의 신세도 그 늙은이와 다를바없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니 《비상대책》이 있기는 있어야겠다.

늙은 《정치철새》로부터 초년생에 이르기까지 권력욕에 환장한것들에게 꼭 알맞는 비상대책은 정신병원행이 아닐가싶다.

본사기자 황 금 숙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의 농산물을 마구 략탈한 흡혈귀

섬나라인 일본은 력사적으로 혹심한 기근에 시달려왔었다.

이로부터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자마자 토지를 마구 빼앗았으며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들을 대대적으로 략탈하였다.

일제가 흰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대량적으로 략탈하기 위하여 꾸며낸 강도적인 《계획》에는 이른바 《산미증식계획》이라는것도 있었다.

일제가 들고나온 《산미증식계획》이란 조선에서 더 많은 쌀을 빼앗아가기 위한 략탈계획이다.

조선의 쌀을 마구 략탈해가는 일제침략자들

그러면 일제가 왜 《산미증식계획》을 들고나오게 되였는가.

1918년 7～9월에 일본에서는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준 《쌀소동》이 일어났다.

이 《쌀소동》은 본래부터 일본에 존재해있던 심각한 식량위기가 정치적형태로 폭발된것이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일본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쌀부족을 해결할 대책을 시급히 세우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일본지배층은 만일 일본에서 일어난 쌀부족을 내버려둔다면 저들이 리윤을 짜낼 자본주의경제운영에 지장을 가져올뿐아니라 앞으로 《쌀소동》보다 더 큰 투쟁이 일어나리라는것을 느꼈다.

이로부터 일제는 쌀부족과 관련한 국내의 경제 및 정치적위기의 해결방도를 조선에서의 많은 쌀략탈에서 찾으려 하였다.

일제의 이른바 《산미증식계획》이란 바로 이런 흉악한 목적밑에 들고나온것이였다.

교활한 일제는 이 략탈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수리조합》이란것을 강제로 만들었다.

간악한 일제는 관권을 동원하여 조선농민들을 강제로 제놈들이 벌려놓은 수리공사장들에 내몰았고 공사에 쓸 돈마저 농민들에게 들씌웠다.

뿐만아니라 농민들에게서 관개시설을 세운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기름진 땅을 공짜로 빼앗아내여 물길을 째고 구조물을 세웠다.

이처럼 일제가 꾸며낸 이른바 《수리조합》이란 조선농민들의 피와 땀을 더 많이 짜내기 위한 악독한 착취기구였으며 살인기구였다.

원한많은 수리시설들이 늘어남에 따라 조선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일제는 매해 《수리조합》세를 엄청나게 올리였으며 흉년이 들어도 관계없이 막대한 쌀을 《수리조합》세로 빼앗아냈다.

엄청나게 비싼 《물세》때문에 농민들은 해마다 가난에 시달렸고 나중에는 땅과 집세간을 죄다 빼앗기고 귀중한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한편 일제는 《토지개량》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밑에 농민들을 내몰아 황무지와 진펄들을 개간하게 하고는 거기에서 생산한 쌀을 악착하게 략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다.

1931년에만 하여도 일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선의 주요곡창지대에서만도 무려 84만 5 000여석의 쌀을 강제로 빼앗아갔다.

일제는 태평양전쟁도발을 전후하여 농산물략탈에 더욱 기를 쓰고 매달렸으며 그 실례가 바로 《식량강제공출제》를 들수 있다.

일제가 강압실시한 《식량강제공출제》가 얼마나 살인적이며 략탈적이였는가 하는것은 그로 인한 량곡략탈이 일제가 패망하기 전해인 1944년에 조선에서 생산된 쌀총생산량의 60～70%에 달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 알수 있다.

간악한 일제는 악명높은 강제《공출》기간 매해 1 000여만석의 쌀을 빼앗아갔다.

이밖에 일제는 밀보리, 좁쌀, 콩 등 각종 농산물도 한해 총생산량의 60%이상을 강제《공출》로 빼앗아갔다.

이렇게 조선에서 략탈한 수많은 알곡이 일본인들의 식량과 공업원료로, 일제의 군량미로 소비되였다.

반면에 조선농민들은 봄내 여름내 뙤약볕밑에서 등뼈가 휘도록 농사를 지었건만 해마다 가을이면 수확물의 거의 전부를 일제와 지주에게 빼앗기고 풀뿌리와 나무껍질 같은것으로 연명하였다.

일제는 이처럼 악착한 착취자, 략탈자였고 야만의 족속들이였다.

세계식민지력사에 일본처럼 사기협잡, 강압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비법강점하고 타민족의 생존권을 극도로 위협, 유린하며 식량마저 깡그리 빼앗은 악착한 략탈자는 더는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한폭의 그림같은 연풍과학자휴양소

2014년 10월 연풍과학자휴양소가 훌륭히 일떠서 준공을 선포하였다.

풍치수려한 연풍호기슭에 한폭의 그림처럼 솟아오른 연풍과학자휴양소,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사랑의 금방석이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과학자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완공된데 이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과학자휴양소가 일떠선 경이적인 현실은 공화국의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정책이 펼쳐놓은 자랑스러운 화폭이였다.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건설을 발기하시고 경치아름다운 연풍호기슭에 그 터전도 몸소 잡아주시며 당창건기념일까지 휴양소를 세계적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과학자들을 위해 바치시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은 군인건설자들은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군인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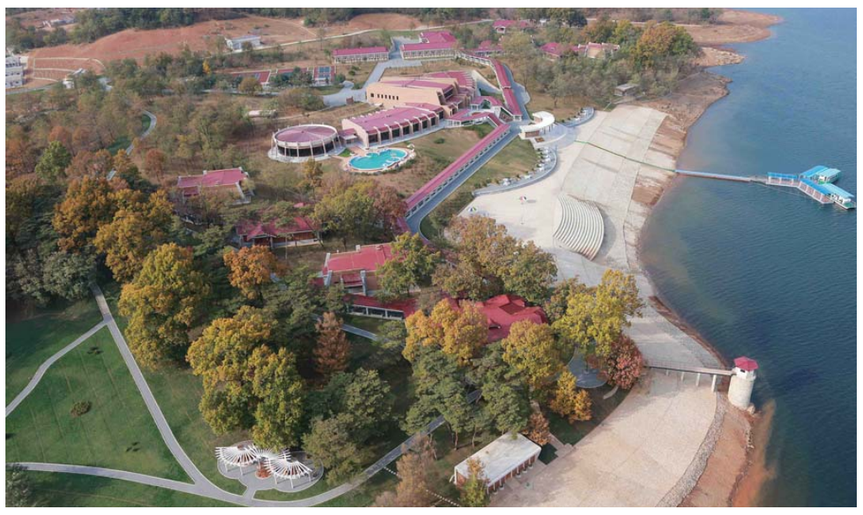
지휘관들은 군인건설자들의 비등된 열의에 맞게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리며 건설공사를 립체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 나날 군인건설자들은 모든 대상들을 비반복적으로 멋지게 일떠세웠으며 건물의 외벽타일과 지붕재색갈도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게 하고 휴양각내부도 고급호텔처럼 멋있게 꾸려놓았다.

또한 휴양소의 중심건물인 종합봉사소를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꾸리고 식사실과 연회장은 물론 리발실, 미용실, 목욕실도 흠잡을데가 없이 꾸리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있는 건축물들을 하나로 련결시켜 볼수록 특색이 있게 꾸린것을 비롯하여 휴양소의 모든 요소요소를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해나갔다.

군인건설자들은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자체의 힘으로 지열에 의한 랭난방



체계를 받아들였다.

뿐만아니라 연풍호의 자연풍치를 더욱 돋굴수 있게 휴양소주변에 지피식물과 나무를 심고 포도덩굴을 정성껏 조성하였으며 구내길에 청석을 깔아놓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호안공사도 번듯하게 해놓았다.

이렇듯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한 기간에 연풍과학자휴양소가 울창한 수림속의 절경으로 솟아오르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게 되였다.

하기에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오면서 바라보니 연풍과학자휴양소가 한폭의 그림같았다고, 자신께서 그려본 황홀하고 희한한 선경이 실물로 펼쳐졌다고, 울창한 수림속에 솟아오른 절경이라고, 짧은 기간에 이곳이 천지개벽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연풍과학자휴양소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후세에 길이 전할 시대의 걸작으로 일떠섰다고,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과학자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일떠선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이야말로 과학자들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영원한 사랑의 품임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기념비로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홍 범 식

덕과 정으로 따뜻한 보금자리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속에 너무도 례사롭게, 뜨겁게 흘러넘치는것이 있다.

덕과 정이다.

사람들모두가 진실한 사랑과 믿음, 도덕의리로 뭉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공화국은 덕과 정으로 따뜻하다.

인간생활에서 덕과 정은 매우 중요하다. 덕과 정이 있어야 사회에 따뜻한 인정미가 차넘치게 되고 즐겁고 보람찬 생활이 창조될수 있는 것이다.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귀중한 산림을 구원하기 위해 세찬 불길속에 뛰여들었던 나어린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기의 피부를 아낌없이 바친 평남땅 인민들의 소행을 비롯하여 남의 아픔을 진심으로 가슴아파하며 사랑과 정을 기울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수없이 꽃펴나고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사회풍조속에 덕과 정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얼마나 많은가.

덕과 정이 없으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돕고 이끌고 보살피는 참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질수 없다.

결국 사회는 자연히 랭혹해지고 메말라지게 된다. 길가에 쓰러진 환자를 두고도 못 본척 스쳐지나고 조금만 거들어주어도 될 일에 손발이 시려 움츠리드는 랭정하고 무정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후덥게 하여주는 온기를 느낄수 없는것이다.

덕과 정은 공화국에 차넘치는 인간생활의 그윽한 향기이다.

공화국에는 뜨거운 정을 가지고 남의 아픔이나 괴로움, 어려움 등을 헤아려 진심으로 도와주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땅 그 어디에나 있다.

취재길에서 만났던 희천주차장관리소의 종업원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몇해전 관리소를 리용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장하겠는가를 놓고 생각하던 이 관리소의 김성일소장은 자기 고장에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약수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한다.

(약수를 길어다 봉사하면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곧 약수터를 찾아 떠났다. 약수터까지는 생각외로 멀었고 길도 험하였다. 하지만 인민의 봉사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수십리나 떨어진 곳에서 매일 약수를 길어다 손님들에게 봉사해오고있다. 이와 함께 희천초등학원의 원아들과 시안의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집에도 약수를 길어다주고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뻐스를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도서열람실과 차음료점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누가 시키지도 떠밀지도 않았지만 인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스스로 좋은 일들을 찾아하는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소중한것인가.

어찌 이들뿐인가.

특류영예군인의 안해가 되여 수십년세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고상한 미풍, 스스로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안고 조국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키워가는 소행은 동지적사랑과 의리, 덕과 정이 차넘치는 이 제도에서만 꽃펴날수 있는것이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고 시기하며 등을 돌려대고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움을 청할 벗도 이웃도 없어 고독에 시달리고있을 때 이 나라 인민은 덕과 정이 차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모두가 웃음속에 살고있다.

덕과 정이 공기처럼 차넘치고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너무도 범상한 일로, 응당한 일로 간주되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보금자리이다.

본사기자

우리 공장, 우리 제품

호평받는 《나래》 제품들

나래도자기공장에서 생산한 위생자기들에 대한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나래》위생자기들은 편리성과 미학성이 보장되였으며 경제와 사회발전이 록색화로 나아가는 세계적추세에 맞게 물절약형, 자원절약형, 건강보호형으로 설계제작되였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위생자기들은 미학적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모든 위생자기들이 깨끗하고 선명하며 형태학적으로도 보기 좋다.

그중에서도 세면기는 대조를 이루는 색으로 단장되여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나래》위생자기에서 특징적인것은 물절약률이 높고 형태와 구조적측면에서 최적화되여 일반위생자기에 비해 가볍고 제작에서 원료소비가 적어 자원절약형이라는것이다.

질좋은 위생자기제품들은 설계로부터 모형제작,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창조된 명제품들이다.

이밖에도 나래도자기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색조화와 친근감이 느껴지는 경쾌하고 아름다운 형태, 섬세하고 세련된 무늬장식으로 하여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을 방불케 하는 갖가지 형태의 화분들도 호평을 받고있다.

나래도자기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은 12월15일품질메달을 받았다.

본사기자

종합적인 치료기지—문수기능회복원

평양의 문수거리에 장애자들이 《우리 집》이라고 정답게 부르는 문수기능회복원이 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종합적인 치료봉사기지로 소문난 문수기능회복원은 나라에서 인민들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흔히 기능장애에 대한 회복치료라고 하면 로력과 자금이 많이 드는 치료로 알려져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기능회복치료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대중은 치료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다.

물치료실만 놓고보아도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것으로 하여 기능치료의 력사가 오래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정부급의 인물들만이 리용하고있는것으로 인식되고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문수기능회복원이 일떠섬으로써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현대적인 치료봉사기지에서 누구나 마음껏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 우리 병원들에서는 생명이 위험한 구급환자를 소생시키면 그것으로 치료가 다 된것처럼 생각하고있는데 환자를 소생시킨 다음에는 해당 질병계통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기능회복원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수많은 형성안과 설계안들을 지도하여주시면서 기능회복원건설에 온갖 심혈을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물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최상급의 치료설비들로부터 특수한 기능을 갖춘 뻐스에 이르기까지 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설비와 기재들을 일식으로 마련해주시고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문수기능회복원이 일떠섬으로써 공화국인민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더욱 뜨겁게 받아안게 되였다.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물치료 등 포괄적인 치료를 받을수 있는 종합적인 치료기지로 꾸려진 문수기능회복원이다.

문수기능회복원의 치료실들에는 다목적렌트겐, 심폐기능검사기, 3차원심장초음파진단기, 뇌파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을뿐아니라 달리기운동기재, 노젓기운동기재를 비롯한 각종 운동치료기재들도 설치되여있다.

하기에 이곳을 돌아본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이런 훌륭한 의료봉사기지를 평범한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리용하고있다니 참으로 놀랍다, 기능장애자들을 위하여 국가가 이렇듯 훌륭한 치료 및 봉사기지를 꾸려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며 공화국의 인민적 보건시책에 찬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오늘도 문수기능회복원은 인민들에게 천가지, 만가지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전하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치료봉사기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진 혁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

테제(theses)란 용어는 력사적으로 당파들과 학파들, 정당들과 정치조직들이 여러가지 의미로 써오다가 결국 사회정치적문제에 대한 자기의 립장과 주장을 천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침과 방도들을 밝히는 강령과 같은 의미로 쓰게 되였다.

테제는 강령과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테제에 투쟁목표와 과업이 밝혀져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강령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강령은 주로 사명과 목적, 임무를 규제한것이지만 테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자기의 립장과 그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과 방도들을 론리정연하게 밝혀준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테제에 규정된 방향과 방도들은 해당 나라 집권당의 확고한 립장과 주장을 집대성한것이며 그것은 테제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 테제에 규정된 방향과 원칙들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완전한 생명력을 가지는것이다.

내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2001년 9월 5일이였다. 날자까지 기억하고있는데는 사연이 있다.

그날 동료들과 함께 거리에 나섰는데 유난히 눈에 띄우는것이 있었다.

하얀색, 빨간색 체육모를 쓰고 앞가슴에는 《번개》나 《우뢰》라고 쓴 카드를 달고 좋아라 웃고 떠드는 귀여운 아이들이였다. 아마 운동회를 하는거라고 나는 짐작했다. 운동회날이면 새벽부터 부산을 피우며 붕 떠있던 딸자식의 어릴적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들 오늘 운동회를 하느냐?》

《그래요.》

아이들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와 동행하던 안내원은 9월 5일은 교육절이라고 하면서 이날이면 온 나라의 모든 학교들에서 운동회가 진행된다고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1977년 9월 5일에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고 한다. 테제가 나옴으로써 교육발전의 일대 전성기가 열리게 되였다는것이 그의 이야기이다.

나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다른 체제에서 살고있고 그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나에게 있어서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한다.

곧 나는 안내원에게 부탁하여 테제를 탐독하게 되였다.

주석님께서 작성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원칙들로부터 사회주의교육학의 내용과 방법, 사회주의교육제도, 교육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 사회적 지원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교육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었다.

주석님께서는 교육테제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교육리론과 방법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교육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과학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인류정치사의 갈피를 번져보느라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향과 방도를 명제화한 테제들이 수없이 발표되였지만 인간개조를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교육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테제가 발표된 나라는 공화국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교육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는데 참으로 뜻이 깊었다.

주석님께서는 교육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주석님께서는 교육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사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토대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력사적 뿌리와 그 확립의 합법칙적 로정을 밝혀주시였다.

나는 모든 나라의 교육자들은 물론 정치인들에게 이 테제를 읽어볼것을 권고하고싶다.

그것은 사회주의교육테제가 교육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학을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도록 하는 과학적인 교육학설이기때문이다.

재중동포 김 영 란

흐뭇한 산과일풍년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황금산의 력사가 창조된 평안북도 창성군에 흐뭇한 산과일풍년이 들었다.

창성군사람들이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된 산들에서 열매를 따들였다.

바구니마다 철철 흘러넘치는 산열매를 안고 기쁨에 넘쳐있는 이 고장 사람들의 웃음소리, 《황금산타령》의 노래소리가 창성군의 산들마다에 메아리쳐갔다.

머루나 다래야 너 맛 좀 보자
새빨간 산딸기야 너도 좀 보자
바구니 하나가 철철 철철철 넘치니
니나노 난노
치마폭 한아름 안고 가자꾸나
한알을 뚝 따서 입에다 넣으니
스리살살 슬쩍 녹아 꿀맛 같구나
…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절세위인들의 뜻을 받들어 이악하게 노력하여 나서자란 고향을 행복의 무릉도원으로 꾸려가는 창성사람들이다.

정성을 다해 가꾼 황금산, 보물산들마다에서 도토리와 다래, 머루 등 많은 산열매를 따들이는 창성사람들의 자랑은 끝이 없다.

참으로 산들마다에 산열매 주렁지고 들판마다 염소떼, 양떼가 흰구름처럼 흐르는 인민의 무릉도원 창성땅이다.

군내 인민들이 따들인 많은 량의 산과일들이 창성식료공장으로 수송되여 공장의 산과일저장탕크들과 원료창고마다에 수확한 산과일들을 농축한 원액과 원료들이 차넘치고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소리 높은 설비들마다에서는 질좋은 산과일가공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흐뭇한 그 모습을 기쁨에 넘쳐 바라보며 창성사람들은 말한다.

험한 령 넘고넘어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쓸모없이 버림받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주시고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살기 좋은 락원으로 더욱더 빛내여주시였다고.

본사기자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5)

단풍든 은행나무들이 안겨주는 가을정서

은행나무는 나무모양이 좋고 잎생김이 독특하며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드는것으로 하여 관상적가치가 높으며 공해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기때문에 가로수, 정원수로 많이 리용되고있다.

은행나무잎은 로인성질병과 고혈압, 동맥경화를 치료하고 피순환을 순조롭게 하며 활성산소제거, 알레르기예방, 혈관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암세포성장억제에도 아주 좋다.

또한 은행나무열매는 결핵이나 기관지천식, 뇌빈혈, 신경쇠약 등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은행나무들이 평양시내의 곳곳에 심어져 가을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은행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류달리 민감하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면 남먼저 파르스름한 기운을 돋군다.

신록이 짙어가는 여름에는 은행나무가 푸른 부채모양의 잎새를 펼치고 시원한 그늘의 《혜택》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안겨준다.

대지가 지글지글 끓는 정오에도 은행나무밑에 들어서면 샘물속에 몸을 잠근것처럼 거뜬해진다.

은행나무는 10월경에 열매를 맺으며 가을에 누렇게 단풍지는데 거의 동시에 락엽지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노란 잎사귀들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독특한 가을정서를 안겨준다. 마가을바람에 길가에 떨어지는 은행나무의 노란 락엽을 밟으며 새기는 지나온 한해의 추억은 참으로 감미롭다.

곳곳에 은행나무들이 가로수와 공원풍치림으로 펼쳐진 평양의 거리풍경은 볼수록 아름답다.

본사기자 리 철 민

갖가지 건강식품, 의약품들을 개 발

공화국의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에서 광물질, 비타민, 필수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여러가지 건강식품들과 의약품들을 많이 개발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의 키크기에 도움을 주고있다.

지난 기간 연구사들은 지혜를 합쳐 애기젖가루 1호와 2호, 어린이영양알, 키크기지능콩, 영양암가루, 어린이소화효소가루, 도토리소화효소가루, 젖산균영양가루, 에리트로미찐장용알약 등을 개발하였다.

그중에서도 애기젖가루 1호와 2호, 어린이영양알, 어린이소화효소가루는 어린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즐겨 찾는 제품으로 되고있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최근에만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새로 개발하고 생산에 도입하고있다.

특히 락비젖산균가루는 장내세균총을 강화하여 소화를 촉진시키고 설사증을 예방하는 누구나 찾는 건강식품이다.

또한 임산모영양알은 칼시움이 부족하여 부종이 오는 임신부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하여 태아영양에도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한다.

이곳 연구사들은 어린이들의 성장발육과 영양섭취에 좋은 건강식품과 의약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혜 성

눈길을 끄는 장미꽃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위치한 금릉운동관의 넓은 공지에 이채로운 장미꽃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금릉운동관의 한 일군은 많은 사람들이 장미꽃을 좋아하듯이 우리 종업원들도 장미꽃을 사랑한다, 그래서 화분에 장미를 심어 장미꽃밭을 형성할 생각을 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장미는 대체로 땅에 심고있는데 이곳 종업원들은 이동식화분에 장미를 심을 생각을 하게 되였다고 한다.

원래 금릉운동관앞은 포장된 넓은 공지였다. 그래서 이곳 종업원들은 포장된 공지에 자갈과 모래, 흙과 부식토를 배합하여 흙층을 형성해놓고 그우에 잔디를 심었다.

이렇게 만든 잔디밭에 이곳 종업원들은 장미를 심은 이동식화분들을 놓아 주변의 풍치를 더욱 돋구었다.

장미를 화분에 심으려면 화분의 높이가 일정하게 보장되여야 한다고 한다.

이곳 종업원들은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리던 파비닐들로 멋있는 비닐화분들을 만들어 장미를 심었다.

장미를 처음 화분에 심다보니 과학연구자료들을 참고하고 화초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활짝 핀 아름다운 장미꽃풍경을 펼쳐놓을수 있었다.

장미꽃을 심는 과정에 정서도 더욱 풍부해지고 일터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커졌다는 이곳 종업원들이다.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장미꽃향기를 맡기도 하고 활짝 핀 장미꽃들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면서 누구나 좋아하고있다.

본사기자 류 현 철

안마법 몇가지

◇ 두손안마법

두손바닥을 빨리 서로 비빈다.

손바닥에 열이 나면 오른쪽손바닥으로 왼쪽팔뚝안쪽을 손목까지 오르내리며 반복마찰한다.

아침, 저녁에 한번씩 한다.

손안마를 잘하면 여러가지로 건강에 유익하다.

•엄지손가락은 신경기능을 흥분시키며 몸의 산-알카리평형을 유지한다.

•두번째손가락의 안마는 소화기계통을 조절한다.

•가운데손가락은 심장혈관계통질병을 예방한다.

•네번째손가락은 신경계통기능을 조절하여 머리를 영민하게 만든다.

•새끼손가락은 비뇨생식기계통과 호흡기계통의 기능을 높여 외부의 감염에 대항한다.

◇ 배안마법

《동의보감》에는 복부안마로 병을 치료하여 장수할수 있다고 씌여있다.

•비위안마

오른손바닥에 힘을 주어 왼쪽늑궁아래에서부터 오른쪽늑궁아래사이를 밀었다당기였다 한다.

•아래우로 밀기

왼손을 검상돌기아래에 대고 치골부위까지 아래우로 여러번 민다.

•배꼽부위돌리기

오른손바닥을 배꼽에 대고 딱 붙이고 손바닥은 움직이지 않고 힘을 주어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

•배주위돌기안마

오른손바닥을 오른쪽아래배부위에서부터 상, 횡, 하행결장의 순서로 복부주변을 돌아가면서 여러번 반복하여 안마한다.

본사기자

유 모 아

괜한 걱정

소건사를 잘 못하여 훈장네 집 곡식에 해를 준 한 목동이 고심끝에 한가지 수를 생각해냈다.

《훈장님네 소가 우리 밭의 곡식을 잘라먹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오리까?》

《소임김은 거름이 된단다. 곡식도 푸ㅡ 하고 뿜어나오는 소입김을 쏘여야 잘되는 법이란다.》

《정말 그렇소이까?》

《그렇구말구, 하나도 걱정할게 없다.》

《그런걸 괜히 걱정했소이다. 사실은 우리 소가 훈장님네 곡식을…》

《뭐라구?!》

유용하게 쓰이는 백색마그네샤세멘트

공화국의 천리마타일공장에서 생산되는 백색마그네샤세멘트가 건설부문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백색마그네샤세멘트생산기술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집단이 천리마타일공장 기술집단과 함께 공화국에 매장되여있는 광물자원을 새로운 원료로 하여 개발하였다.

현재 여러 건설장에서는 백색마그네샤세멘트를 건물외벽의 장식미장을 비롯한 마감시공에 리용하고있다.

이 세멘트는 백색도가 88% 이상이며 고회석세멘트생산에 비해 많은 연료와 로력, 시간을 절약한다.

생산공정이 간단하고 공장에서 현존설비를 그대로 쓰기때문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없다.

자체의 힘으로 개발한 백색마그네샤세멘트는 더 문명한 미래를 장식해나가는 건설장들마다에서 유용하게 쓰이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시문학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시와 문장에 능한 림 춘

림춘은 고려시기 시와 문장에 능하여 당대에 이름을 날렸다.

림춘은 자신이 겪은 불행한 처지로 하여 무신통치배들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대하였다.

그의 시 《령남루》, 《리미수, 리담지와 함께》, 《벗에게》 등은 그의 창작경향과 시적재능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들이다.

림춘은 《공방전》과 같은 의인전기체형식의 작품을 처음으로 창작함으로써 중세산문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문집으로는 《서하집》이 전해진다.

《벗에게》

십년동안의 기구한 나의 길
온 얼굴에 먼지를 들쓰고
운명의 철없는 시샘을 받았는지
길이 괴롭게만 살아왔네

앞길 아득하여
배 대일 나루는 너무 멀고
정성들여 쌓아올린 나의 공은 이룩하지 못했어라

벼슬아치 되지 않고
마음대로 바른말 하리라
무엇때문에 시에는
슬픈 노래들만 담으랴
…

시에서 림춘은 고통스럽고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날이 갈수록 앞길이 암담해지는것으로 하여 울분과 분노에 모대기는 심정을 형상적비유의 수법으로 노래하였다.

허 성 철

사화

최 무 선 이 야 기 (2)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는 그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 화약을 얻고 화통을 장만하기 전에는 왜구를 막을수 없으며 나라와 백성을 편안히 할수 없다.)

최무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는 뒤짐을 지고 깊은 생각에 잠겨 달밝은 뜨락을 거닐었다.

송악산에서는 산새들이 유난히도 구슬피 울어 그의 가슴을 더욱 타들게 하였다.

(나의 지성을 알아줄 사람을 만날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역시 자기 나라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할것이다. 왜구란 우리 나라의 적만이 아니라 원나라의 적이기도 하지 않는가! 가슴을 헤치고 나서면 반드시 귀인을 만날것이다!)

최무선은 이런 생각을 하며 좁은 뜨락을 한동안 오락가락하였다. …

례성강포구는 당시 배길을 통하여 대륙과 무역하는 유일한 항구였다.

중국의 상선은 서해를 곧장 건너 조선서남단에 이르러서부터는 해안을 끼고 거슬러올라 개경의 문어구라고 할수 있는 이 례성강포구에 닻을 내리군 하였다. 상선들이 들어올 때에는 개경에서 관속들과 군대와 일군들이 모여들었고 구경군들도 근방에서 떨쳐나와 낯선 외국의 배와 사람들 그리고 진귀한 상품들을 구경하느라고 법석대였다.

최무선은 미미한 관리인지라 정부대표들의 뒤를 따라 흥성거리는 사람들사이를 거닐면서 자기와 가슴을 헤치고 말할수 있을 사람을 찾느라고 애쓰고있었다.

여러척 되는 배의 갑판에 올라 외국상인들과 인사도 나누고 물건구경을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을 보았으나 어쩐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이 마지막배에서 상품구경을 끝내고 내리려 할 때에 최무선은 선실에서 나와 선수쪽으로 사라지는 한사람에게 눈이 갔다.

최무선은 배에서 내려 다시한번 돌아보았다. 그 사람은 배머리에 기대여 경치를 바라보고있는듯 하였는데 그의 훤한 얼굴이며 단정한 몸가짐과 침착한 눈매가 미덥게 보였다.

그러나 최무선은 일행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날수밖에 없었다.

최무선은 시간을 타서 다시 부두에 나가 그 배를 눈여겨보았으나 그 청년은 어디에 배겨있는지 통 볼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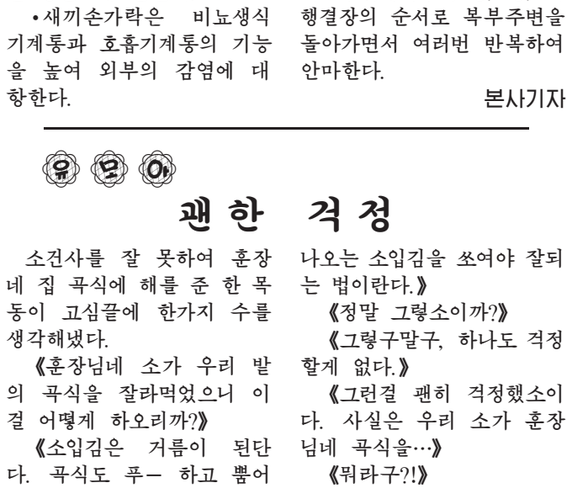
최무선이 그 청년과 마주앉게 된것은 저녁해가 뉘엿뉘엿 먼 서해의 수평선에 떨어질무렵이였다.

최무선은 해안을 거닐고있는 그를 따라가서 통성을 하고 물거품이 발밑에 밀려드는 바위돌에 같이 앉았다.

《고려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리원이라고 하는 그는 온 누리가 빨갛게 노을에 물든 먼바다끝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더럽히는 무리들이 있어 걱정입니다.》



《아니, 그건 또 어떤 놈들입니까?》

《그 발칙한 왜구들이지요.》

《왜구!》

리원은 입속으로 외우고나서 《모조리 씨를 말려버려야지요.》 하고 말했다.

최무선은 자기가 예상한대로 상대가 이야기에 끌려들어오는것이 기뻐서 《듣건대 당신의 나라에선 화약과 화통으로 왜구를 물리쳤다던데?…》 하고 리원의 눈치를 보았다.

아니나다를가 리원은 경계하는 빛이였다.

《그렇습니다.》 리원은 간단히 이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두사람의 대화는 잠시 끊어졌다.

최무선은 이 기회를 놓칠가봐 겁이 났다. 그래서 간절한 음성으로 다우쳐물었다.

《나는 당신이 당신네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두 나라가 다같이 당하고있는 일을 두고 기탄없이 말해보고싶습니다.》

《다같이 당하고있는 일이요?》

리원은 다소 정색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신네 나라에서 왜구를 화약의 힘으로 물리쳤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그들이 두번다시 침노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리원은 다시 이야기에 끌려들었다.

《우리 나라에는 화약도 없고 하여 왜구를 막는 일이 그때그때의 미봉책으로밖에 되지 못하는터이나 그처럼 굉장한 힘을 가진 화약만 있으면 놈들을 뿌리채 뽑아버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채 뽑는다구요? 물론 그랬으면야 좀 좋겠습니까. 그러나 놈들의 본거지는 우리 나라에서 멀뿐만아니라 나라에 내란도 있고 해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생각이 계신지요?》

한순간 리원의 생각깊던 눈이 밝게 빛났다.

민족음식

김치순두부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콩으로 순두부를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여왔다.

순두부에는 많은 량의 콩단백질외에도 콩지방, 콩레시틴과 여러가지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따라서 순두부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장혈관계통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으며 기억력상실, 로인성치매를 막아주는 작용도 한다.

순두부에는 김치순두부도 있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음식으로 되고있다.

김치순두부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식감으로 콩 1kg, 배추김치 1.5kg, 양념간장 40g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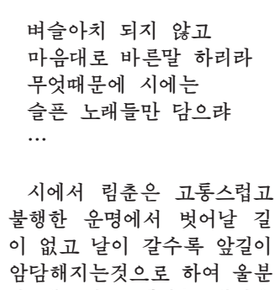
콩은 불구었다가 갈아서 밭은 다음 가마에 넣고 저어주면서 끓인다.

콩물이 끓어오를 때 잘게 썬 배추김치를 두고 불을 끈다.

순두부가 되면 인차 그릇에 담아 양념간장과 같이 낸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김치순두부가 완성된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개미는 작아도 탑을 쌓는다.

아무리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이라도 꾸준히 애쓰고 노력하면 마침내 훌륭한 결과를 이룰수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

❖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새도 없다.

멎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가는 물방아는 추워도 얼어붙을새가 없듯이 무슨 일이나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면 일도 잘되여가는 법이라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